

# 실화조사의 현황과 전망

현 승 환 \*

## 目 次

1. 머리말
2. 현 황
  - 2.1. 자료집의 실태
  - 2.2. 제목 선정의 문제
  - 2.3. 조사 내용
  - 2.4. 조사 자료 검토
  - 2.5. 자료의 이용
3. 전 망
4. 맺음말

## 1. 머 리 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에서는 거의 매년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해 왔다. 1972년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를 조사하여 국문학보 제 4집에 그 성과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제주도 각 지역은 조금씩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 놓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축적된 자료를 1989년에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한데 묶어 전 4권으로 제주도부락지를 낸 바 있다.

\* 문학박사, 고전문학.

이와 같은 귀중한 자료가 모이고 축적되고 있으나 이들을 중요시하여 논의하는 자리는 별로 마련되지 않았다. 근래에 들어 마을지를 출간하려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 자료집은 필수불가결한 자료로 이용될 뿐이다. 그러한 이유는 자료의 특수성에 있다.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절해 고도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외부 문화가 유입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번 유입되면 쉽게 버리지 않았다. 일단 들어온 문화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시켜 자신들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절해 고도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수성은 본토에 비해 변방이라는 의식 속에 사로잡히게도 하지 만 오히려 지역에 강한 애착을 갖게 하는 요인도 되었다.

학술조사는 바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문화 전승자들이 어떻게 현실을 극복하며 적응해 나가는지를 몸소 체험하기 위해 이루어진 작업이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인으로서 학문을 연구하는 기틀을 생활터전에서 찾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의무이다.

이러한 자각은 제주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학계에 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sup>1)</sup>

제주도에서 구비전승 자료의 수집 결과는 아주 미약하다. 김영돈에<sup>2)</sup> 의해 제주도 민요의 실상이 밝혀지고, 현용준에 의해 제주도 무속의 종합 고찰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면 여태까지는 구비 전승 자료의 채집 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시점에서 국어교육과와 국어국문학과에서 행하는 하계방학 동안의 구비전승 자료 수집을 위한 학술조사는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 사람이 모이면 서로의 삶을 전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말을 하면서 이야기는 살지고 성장해간다. 그러나 교통 통신의 발달로 구비전승 자료들은 급속히 망각하고 있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려는 관심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야기는 사람과 함께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1) 고려대 국문과 : 비금도, 울릉도 및 남해도의 민속 언어 조사.  
단국대 국문과 : 안동, 봉화, 전남, 경남 및 동해안 지역의 학술 답사 보고  
서울대 문리대 국문과 : 연평, 백령, 대소청제도 및 속리산 학술 조사 보고  
이화여대 국문과 : 김해, 밀양, 거창, 함양, 울릉도, 해남 지방 학술 답사 보고

2)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이야기 속에는 허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허구같은 진실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기록되어 후대까지 남게 된다. 또는 실제적 사건들이 민중들 손에 의해 새롭게 빚어져 전혀 다른 결말을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설화는 가치있는 문학작품임을 알게 된다.

제주도민들이 창작해낸 문학작품들은 제주도민들만의 것이 아니다. 제주민의 삶은 한국인의 삶이요, 한국인의 삶은 세계인의 삶이다. 따라서 제주민의 설화는 세계인이 향유할 수 있는 설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실상은 제주민조차 그 삶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료 수집만 목표로 하다 보니 제주도민 이외에는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언어를 모르고서는 풀 수 없다. 제주 방언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를 제공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기존의 설화 자료들 중에서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에서 발간된 자료집을 대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제주 설화를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현황

### 2.1. 자료집의 상태

제주도의 설화는 진성기, 현용준, 김영돈 등에 의해 상당히 많이 채록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 그들이 채록 간행한 자료집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 진성기, 남국의 전설(일지사, 1968)

1958년에 초판을 내었던 '제주도 설화집'(프린트판)의 개정판이다. 서명에서도 추찰하여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전설의 개념을 설화와 동일한 것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책 속에는 신화·전설·민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채집 지역을 제주도란 일지역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수록 편수는 지역적 전설 14편, 역사적 전설 14편, 도합 28편이다.

제주도란 한 지역의 민담을 조사 수록하고 있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나라 유일한 특정 지역 민담보고서(단행본)일 것이다.

전성기, 남국의 설화(博文出版社, 252면, 1959)

저자의 각고의 노력으로 수집한 설화를 신화, 전설, 민담, 실기로 구분하고 있다. 신화는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무속신화가 11편, 2부에서는 신화적 성격이 강한 설화가 10편 수록되어 있다. 전설 역시 1부에서는 6편, 2부에서 6편으로 구분되어 있다. 민담도 1부에 11편, 2부에 11편으로 제주도의 독특한 민담들이 수록되어 있다. 실기에는 전설에 넣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실재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과 관계있는 설화들이 1부에 5편, 2부에 7편이 실려 있다.

전성기, 남국의 민담(螢雪出版社, 324면, 1976.)

<제주도 옛말>이라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제주도 한 지역의 민담집으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옛말이라고 부제가 붙었듯이 설화라는 틀을 벗어나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르 명칭을 쓰고 있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 총 102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옛말에 걸맞게 민담 뿐만 아니라 전설도 많이 실려 있다. 무속적 옛말, 지연적 옛말, 토속적 옛말, 역사적 옛말로 이루어졌는데 제주 방언을 구어체로 그대로 표기함으로써 설화학 뿐만 아니라 언어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본토 사람들을 위해 표준어로 주를 달아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용준, 제주도 신화(서문당, 314면, 1976)

이 책은 일반 독자는 물론, 국어국문학·민속학 등 國學의 여러 분야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신화를 수록한 자료집이다. 심방(巫覡)의 구연 또는 촌로들의 구술을 현지에서 녹음·조사하고 가급적 화자의 구술을 존중하여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표준어 문장체로 기술하였다. 신화는 개벽신화, 시조신화, 일반신화(9편), 당신화(12편), 조상신화(5편)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현용준, 제주도 전설(서문당, 1976)

제주도 전설을 자연전설(19편), 역사전설(46편), 신앙전설(25편)로 나누고 전설에 대한 개설을 첨부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편하다.

이 외의 자료집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설화조사의 현황과 전망

- 진성기, 남국의 전설(제주도설화집), 일지사, 1959.  
진성기, 남국의 무가(제1·2·3집),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0.  
진성기, 남국의 신화(제주도무속연구 제일집), 아림출판사, 196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주설화집성(1), 1985.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弘盛社, 198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조사보고서, 1974.

또한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문학보, 국어교육과의 백록어문, 그리고 학술조사보고서가 있는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창천리학술조사, 국문학보 제4집,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1972.  
우도학술조사, 국문학보 제5집,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1973.  
가파도학술조사, 국문학보 제6집,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1974.  
중문리학술조사, 국문학보 제7집,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1975.  
행원리학술조사, 국문학보 제8집,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1986  
귀덕리학술조사, 국문학보 제9집,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1989  
동북리학술조사, 국문학보 제10집,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199  
의귀리학술조사, 국문학보 제11집,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1992  
수산리·구여리학술조사, 국문학보 제12집,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1994  
명월리·대평리 학술조사, 백록어문 창간호, 제주대 국어교육과, 1986  
은평리학술조사, 백록어문 2집, 제주대 국어교육과, 1987,  
하례리학술조사, 백록어문 5집, 제주대 국어교육과, 1988,  
김녕리학술조사, 백록어문 7집, 제주대 국어교육과, 1989,  
고산리학술조사, 백록어문 8집, 제주대 국어교육과, 1990,  
추자도학술조사, 백록어문 9집, 제주대 국어교육과, 1992,  
선홀리·회천리학술조사, 백록어문 10집, 제주대 국어교육과, 1994.

- 난산리학술조사, 학술조사보고서 제5집, 제주대 국어교육과, 1977.  
성읍리학술조사, 학술조사보고서 제6집, 제주대 국어교육과, 1978.  
남읍리·덕수리 학술조사보고서 제7집, 1982.  
광령리·곽지리 학술조사보고서 제8집, 1984

이러한 자료 외에도 郡誌, 邑誌, 마을지 등을 합치면 상당한 양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자료들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어쩌다가 자료를 몇 개 찾으려면 한국구비문학대계를 제외하고는 전부 읽어보고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구비문학대계인 경우에는 색인이 만들어져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 제주도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한 눈에 자료를 조감할 수 없어 정리의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한국구비문학대계처럼 색인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 2.2. 제목 선정의 문제

20편의 조사보고서 중 설화는 350여편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는 체계가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는 표준어로 기술하고, 어떤 경우는 방언으로 기술하는 등 고정된 틀이 없다. 또한 설화 제목들이 비슷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자 임의대로 정하여 수록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친정 아버지 묘자리를 시아버지 묘로 쓴 며느리 이야기(학술조사보고서 8집, 1984)  
효부 이야기(국문학보 제9집, 1989)  
딸은 출가외인(국문학보 제9집, 1989)  
친부묘터 빼앗은 딸(백록어문 제10집, 1994)

이 네 편의 설화는 결혼한 딸이 친정 아버지를 모실 산터가 명당임을 알자 물을 길어다 부어 산을 못 쓰게 한 후 나중에 시아버지를 모신다는 내용의 설화로 장덕순의 분류의 의하면 인간담의 夫婦, 烈 또는 신앙가치담의 명당 중 '딸은 헛것'에 해당한다. 이 자료의 내용을 가장 축약하여 잘 전달할 수 있는 '딸은 출가외인'이라

는 제목이 적절하다 하겠다.

황정승과 고종달(고산리, 1990)

맹정승(납읍리, 1982)

이들 이야기의 내용은 조선에 큰 인물이 있는데 이들은 모르는 것이 없다. 중국에서 조선에 인물이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공작새를 보내어 기르다가 돌려 보내도록 한다. 이 때 이 공작새가 거미를 먹고 산다는 것을 알고 과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황정승과 맹정승이다. 그러한 사람의 출현을 막기 위해 단혈하러 오는 사람이 고종달이다. 따라서 황정승이니 맹정승이니 하는 제목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공작새는 거미를 먹고 산다고 하는 편이 기억에 용이할 것이다.

이처럼 제목은 중요하다. 제목으로 설화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제보자가 전해주는 제목이 우선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는 조사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통일될 수 있는 일이다.

### 2.3. 조사 내용

1979년부터 한국구비문학 전국조사 사업이 시작되면서 일관성 있는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국 구비문학 조사 연구조사위원 협의회에서 확정된 조사지침에 따르면 자료만이 아니라 그 자료를 전승시키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기술토록 하고 있다. 조사사항 중의 일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 조사 마을

조사단위지역에서 2개면당 1마을 이상을 조사하되 조사지역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한다. 또한 조사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을 택한 이유, 조사일정 및 경과, 연혁, 주민구성, 자연환경 및 산업의 특징, 전통문화의 일반적 양상, 민속 및 구비문학상의 특징 등을 조사해서 '마을개관'에서 기술 보고하여야 한다.

#### ㉡ 제보자

제보자는 성명, 성별, 연령, 거주지, 생장지, 직업, 생애 및 경력, 학력, 사회적 위치, 구연상의 여러 특징 등을 조사해서 제보자 항목에서 사진과 함께 별도로 기술

한다.

㉔ 단위지역 개관

조사단위지역인 군에 대해서 연혁, 행정구역별 인구 및 주민구성, 자연 환경 및 산업상의 특징, 교육 기타 문화적 특징, 전통문화의 일반적 양상, 민속 및 구비문학의 특징, 조사 일정 및 조사성과 등을 조사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지침은 설화 각편 자체를 중시할 뿐 아니라, 설화를 전승시키게 된 주변 환경을 탐구함으로써 설화 자체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설정된 것이다.

기존의 조사는 제보자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보자 : 성명, 남, 나이」라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1981. 7. 16.; 안덕면 덕수리, 성명, 남, 나이」라는 정도로 채록 일시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설화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설화는 문학작품이기 때문이다. 언어를 사용하여 제보자가 생각하는 사상과 감정을 이야기를 통해서 청자에게 전달하므로 제보자는 작가이고, 청자는 독자이다. 때문에 독자가 문학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를 이해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시대상을 이해하여야만 비로소 한 작품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4. 조사자료 검토

조사자료의 수록은 제보자와 설화 제목, 설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누가 어떤 내용의 설화를 구술하였다.'라는 사실만 알려줄 뿐 다른 정보를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훼손시키지 않고 채록한 공헌은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

국문학보 4-12집과 백록어문 1-10집, 학술조사보고서 5-8집에 수록된 설화를 나누면 민담 126편, 전설 229편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특히 전설은 인물전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중에는 장사전설과 풍수전설이 많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자의 선입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한 편의 설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채록되었는지를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조사 결과에서 인물전설이 많은 경우는 제보자들이 남성중심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증거를 대어 말할 수 있는 것이라야 가치가 있다는 전승의식 때문



이다. 실제 현장 조사시 제보자가 흥이 나서 소담을 구술하려 하면 주위에서 쓸 데 없는 말을 하려 한다고 극구 말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것은 구연하는 설화에 대한 진실성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거를 댈 수 있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조사자는 얼른 조정하고 제보자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광의의 설화라는 용어 속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연구의 편이를 위해 만들어 놓은 용어일 뿐이지 처음부터 전승자들이 그런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구술하고 전승하는 것은 아니다. 신화, 전설, 민담에 대한 구별 없이 옛말로 전승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설화라는 용어의 의미는 '옛말' 곧 '옛날 이야기'이다. 이는 옛날부터 전승되어 온 말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古(옛날) 談(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한문교육의 결과이다. 실제로 촌로들에게 설화를 수집할 때 여자에게는 옛말, 남자에게는 고담이라고 할 때 조사자가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옛말을 구술한 것을 보면 신화, 전설, 민담의 종합인 반면 고담을 구술한 것을 보면 상당수가 민담이다. 남성촌로들의 고담은 '우스갯소리'라 칭하는 것이 많고 말을 마치고 난 후는 '다 허드렁헌 말이라'고 촌평을 한다.

반면에 진실하다고 믿는 것은 전설이다. 옛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이 傳説은 진실성을 담고 있어 학문을 하여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즐겨 구연한다. 이러한 결과, 실제 현장에서 문학성이 높은 민담을 수집하기란 쉽지 않다.

## 2.5. 자료의 이용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본토에서 격절해 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문화의 유입이 늦었다. 탐라국에서 백제에 복속, 고려에 복속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면서 제주의 언어는 본토의 고향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본토인들이 제주에 관광하러 왔다가 제주인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점만으로도 제주 방언의 독자성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간밤이 너의 부친 제서지.' 흥난 뒤 거 속일 수 이서. 구신구째(귀신같이) 말 해 가니깐,

“예 아버지 제섭니다.”

“너이들 왜 싸웠느냐 너이들 두 해나 들어 싸움박질헐?”

“뭐 하찮은 것에 우리 아시가(동생이) 대답해가곤태(하길래) 그자 서로 곤거니(말하거니) 뜰거니(다투거니) 흥난 그자 이처럼 경(그렇게) 되어수다.”

“너 아버지가 두 해나 오란 봐도 느이 음식도 추잡하게 흥고(깨끗지 못하게 하고) 느이 싸움만 흥거드니깐, 신감도 안헐 갔다. 흥니깐, 후년(뒤해) 느이 아버지가 또 올거라. 오라서 그따운(따윗) 행서하면, 또 나신디 오랑 원정을 들거라. 흥면, 느이들 그때는 심어다쳐서 이젠 발을 줄 게고, 대정굴로 가서 말해서, 다 하배래 느리쳐서 느이들 뭐 목조를 느리치든 못해서 저 흥겠다.”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 남 70. 제주도부락지(II), 519-520)

얼른 보아서 이해할 수 없다. 제주 방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자세히 읽어야 알 정도이다. 아시(동생), 흥다(하다), 곤다(말하다), 심다(잡다) 등은 고대어의 냄새가 짙다. 이처럼 지금은 사라져 없어졌을 고어가 현재 자연스럽게 제주도민 사이에서 소통되고 있는 것은 절해고도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 방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 방언에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한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준어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방언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채록된 자료를 요약하여 어떤 내용의 설화임을 표준어로 밝혀 제주 방언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다. 내 손 안에 있는 보물이 인정받으려면 남이 알고 평가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너무 자의적으로 변화시켜서는 안된다. 부적절한 채록의 예를 들어본다.

<옛날 지금의 중문리 감사물이라는 곳에 김명헌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워낙 인품이 뛰어나고 문장에 능해 가히 학문에서 일가를 이루었던 그는 젊었을 때부터 입신해 보고자 과거를 보러 늘 서울을 제집처럼 드나 들었다.

그는 충분히 장원을 할만큼의 재즈를 가지고 있었으나 천운이 그에겐 없었던지 계속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자기가 타인에게 써 준 시문으로는 그 사람은 급제하지만 이상스럽게 그에겐 이런 행운이 찾아오질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과거가 있을 때마다 상경하여 응시하였다. 허나 결과는 언제나 낙방이었다. -생략>

(남제주군 중문면 중문리 설화전승자, 정기호, 남, 80, 74-75, 제주도부락지(IV))

이 자료는 제보자가 어떤 상황에서 조사자와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갖고 구연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조사자가 어떤 형식으로 일반인의 취향에 맞게 설화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이러한 자료는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쉬우나 전문 연구자에게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미흡하다.

때문에 제주의 설화를 일반인에게도 알리고 전문가의 연구자료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제보자가 구술한 내용이 어떤 설화인지 그 개요를 간략히 표준어로 기재하고 다음에 살아있는 설화를 그대로 수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언만으로 이해가 곤란한 어휘에는 주를 이용하여 표준어 해석을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제주 방언이 사라지고 전국이 표준어권화 하는 멀지않은 미래에 제주도 마을에서 채집된 자료들은 상당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연구에 적용되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민속학에서 : 문학작품은 그 문학작품이 탄생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작품 속의 인물들의 생활은 그 시대인의 생활 문화의 반영이 되는 셈이다.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면 자연히 작품 속 생활 패턴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설화 역시 하나의 작품이므로 그 속에는 전승 집단의 민속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자청비 설화를 예로 들어 살펴 본다.

「말짖 자청비광 문왕성의 문도령은 제식으로 들어사그네 모든 인민 용시짓거든 요시 잘되게 허영 언어먹기 마련허는 제석할망으로 들어사고, 정이어신 정순네빈 국도 하흠동에 밭도 하흠동에 이구 십팔 열여덟 동이 먹던 정이어신 정순네빈 무정봉쇄 너른 땅으로 가건 무시질과주건 하양 백중대제 일로 국이영 밤이영 허당 놓거든 잘 언영 먹으렌.」<sup>3)</sup>

자청비와 문도령은 농사를 잘 되게 해 주는 제석할망으로 들어서서 언어먹고 살게 되었고, 정이어신정수남이는 넓은 땅에서 마소를 키워주는 신이 되어 백중 날에 제사를 받아 먹고 살게 되었다는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화는 마소를 키우는 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목동들은 마소를 관장하는 신에게 백중 날이 되면 제를 지내는데 이런 민속의 이유를 이 설화는 설명해 주고 있다.

선홀안씨 장사는<sup>4)</sup> 따비로 밭을 갈면서 9인 몫의 밥을 혼자서 먹고 일을 끝마친다. 이어서 그는 12인의 몫의 밥을 역시 혼자서 먹고 흙을 다져 농사를 짓게 만든다. 이 설화는 제주도민이 과거에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땅

3) 자청비, 백록어문 10집, 제주대 국어교육과, 1994, p.175.

4) 선홀안씨 장사, 「백록어문」 10집, 제주대 국어교육과, 1994, pp.146-148.

이 척박하기 때문에 따비로 땅을 일궈 흙 병덩이를 부수고 메밀 씨를 뿌려 농사를 지었다. 수확하면 먹을 수 있게 멧들로 간다. 이러한 농사법이 구연설화 속에 남아있다.

문학에서 : 설화는 문학작품이므로 향유층의 정신세계를 표출하고 있다. 제주도 전설에는 유달리 장사 전설이 많이 수집되어 있다. 실제 구연 현장에서 이야기를 끌어내다 보면 제보자는 증거물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 한다. 그래서 문학성이 풍부한 민담을 배제하고 실제적 사건만을 구술하려 한 제보자에게 원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도의 농사는 결코 풍족하지 못하여 일년 내내 농사를 지으면서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는 와중에서 기운은 세지만 배고픈 인물들은 향유층의 동정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50인분의 식사를 혼자 먹고 50인 몫을 한꺼번에 해 내는 막사니,<sup>5)</sup> 그에 못지않은 부대각 등이 제주도민의 굶주림을 대신 보상해 주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쫓겨나가거나 굶주려 죽고만다.

또한 제주도의 장사들은 날개가 달려 있다. 부모가 밭에 일하러 갔다 돌아와 보면 구덕 위에 눕힌 아이가 없다. 날개가 돌아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며 놀다 오는 것이다. 날개가 돋은 자손을 낳는 집안은 역적이라 하여 삼족을 멸한다고 한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독한 술을 먹이고 아이의 날개를 잘라 버리거나 인두로 지져 날지 못하도록 한다. 이 때부터 아이는 날 수만 없을 따름이지 힘은 장사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장사 이야기는 본토에서도 나타내는데, 본토의 아기장수는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아기장수는 장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둠으로써 인물의 결핍에 대한 보상을 얻고 있다.

옛부터 제주도민은 힘들게 살았으므로 고난을 극복시켜 줄 인물을 갈구했다. 그러나 주변국에 조공을 바치기만 했지 받아보지 못했으며, 외침을 받으며 어렵게 삶을 꾸려나갔다. 인물이 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나올 수도 없다고 설화<sup>7)</sup>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은 불행하지 않다.

<거 굶버리, 아흔 아홉 굶버리라 헨디 저 산에곡. 산엔디 저 아흔 아홉 굶버리 가. 저 백 굴이 차시민 범도 나곡 곰도 나곡 다 헨 건디, 이제 백굴이 안차서 아흔 아홉 굴배기 안되노니까 이 제주돈 곰도 엇곡 범도 엇곡 깨끗하다고 헨 섬이라.>

5) 장사 막사니, 『국문학보』 제4집,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72, pp.152-153.

6) 고씨막 장사 이야기, 학술조사보고서 8집, 1984.

7) 아흔아홉굴, 백록어문 제6집, 1989, p.286.

백에서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꿈이나 범같은 짐승이 없다는 것이다. 전승자들은 이를 좌절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깨끗한 섬이 되었다고 결핍의 보상을 살기 좋은 땅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설화는 주변 과학의 힘을 빌 때 상당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전 망

어떤 작업이든 본격적인 연구는 자료의 조사에서부터 출발한다. 설화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한 Grimm 형제는 독일의 설화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대 아리안 신화의 최후적 반향이 민담이라고 하는 인구기원설(Indo-European theory)을 주장하였다.<sup>8)</sup> 즉 신화가 여러 민족의 테두리 안에서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신성성이 사라지면서 변형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깨끗이 허물어졌을 때, 그 잔재로부터 민담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인도·유럽의 언어가 印歐共通祖語에서 유래하듯이 인도·유럽의 민담도 인도 유럽의 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제주 설화를 조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제주도는 옛부터 당오백 절오백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무속이 성행했다. 그 결과 지금도 심방들에 의해 무속신화는 노래불러지고 있다. 이를 본풀이라 한다. 많은 부녀자들이 집안의 안녕을 빌고 복을 기원하기 위해 堂을 찾고, 한 해의 운수를 점쳐 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방의 본풀이는 신앙민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각인된다. 신앙민들이 본풀이를 신앙하든 않든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들의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본풀이의 내용이 틀림없다고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는 미신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신앙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인구기원설처럼 신화의 신성성이 사라지면서 민담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이다.

8) 김열규 외, 민담학개론, 일조각, 1982, pp.76-77.  
최운식,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1991, pp.24-25.

실제로 현장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보아도<sup>9)</sup> 무속신화 본풀이가 전승자들에게서는 한갓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음을 본다. 설화에 대해 기초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저 헛갈릴 정도로 내용의 변이를 일으켜 제목마저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설화를 보는 눈은 역사·지리학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크론(K.Krohn)이 창시하고, 아르네(A.Aarne) 등이 계승한 것으로 이들을 핀란드 학파 또는 역사지리학파라 한다. 이들의 연구방법은 ①많은 유사한 자료를 집적하여 전체에 공통하는 원형을 상정한다. ②상정된 원형에 의해 설화의 원 고향, 즉 발생지를 가정한다. ③성립 시대를 찾는다. ④각 지방, 각 국가들에 있어서의 변화를 찾는다. ⑤이동의 방향을 찾는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10)</sup> 이러한 것은 동일한 유형의 설화가 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 국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 물론 이러한 다양성은 다원발생설로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주도 설화의 경우 이 역사지리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할 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북으로는 한국본토, 동으로는 일본, 서로는 중국, 남으로는 흑조해류를 따라 진행되는 인도네시아로 둘러싸인 해양 요충지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요충지가 이동의 장애요인으로 말미암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제주도에 주변국 문화요소가 상당수 남아 있다. 그러므로 주변국가의 많은 문화 요소가 제주도에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선주민이 문화 이동을 통해 습득하고 독창화한 문화 요소를 찾고,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전통을 새롭게 세우는 데 한 지표가 될 것이다.

제주도의 삼성시조신화는 명칭에서 논란이 없지 않으나<sup>11)</sup> 탐라건국신화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삼성신화는 남방계 요

9) 노가단풍 애기씨, 마툰이, 허웅애기, 원강암이, 스만이, 주청비, 안택조상, 기동지와 애기씨, 과양생이(백록어문 10집, 1994, 선홀리 설화), 스만이1, 자청비, 남선비, 스만이2(백록어문 10집, 1994, 회천리 설화), 사령강님 이야기(백록어문 5집, 1988, 하례리 설화), 인간세상 이야기, 모기 생긴 이야기(백록어문 7집, 1990, 고산리 설화), 자청비, 허웅애기, 사람의 죽음과 까마귀, 남선비 이야기(백록어문 2집, 1987, 온평리 설화), 스만이, 자청비 이야기(락지리 설화)

10) 조희웅, 「설화 연구의 제측면」, 고전문학을 찾아서(서울, 문학과 지성사, 1976), p.342.

11) 1993년 10월 15일 탐라문화연구소에서 개최한 삼성신화의 종합적 검토라는 학술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바 있다. 탐라문화 제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참조

소로 이루어져 있어 고대 탐라는 토착 문화에 남방문화를 수용하였다고 하였다.<sup>12)</sup> 그러나 삼국시대 때는 백제의 속국이었고, 그 이후에는 고려의 속국으로 근 100년 동안의 몽골 문화 속에 놓여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면 남방보다는 오히려 북방문화와의 교류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허남춘은 高·梁·夫 3인 유형은 단군신화의 風伯, 雨師, 雲師 고구려 주몽신화의 烏伊, 摩離, 陝父 신라의 朴, 昔, 金 등과 같은 것으로 이들은 주권자, 전사, 서민이라는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북방계 요소가 혼효되어 있다고 하였다.<sup>13)</sup>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때 제주도는 고대로부터 남과 북의 문화를 수용하여 새롭게 다듬으며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제주도의 삼성신화는 주변국과의 문화교류의 과정을 보여주는 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는 구전신화에도 있다. 삼공본풀이가 그것으로 이것은 전상신의 내력담이다. 전상신은 전생신이라고도 한다. 전상은 비정상적인 행위나 그러한 마음을 말한다. 이 설화는 누구 북에 사는가라는 부친의 물음에 자신의 북에 산다고 하여 쫓겨난 딸이 가난한 마통이를 만나 금덩이를 발견하고 부자가 된다. 자신을 미워해 쫓아낸 부모를 찾기 위해 거지잔치를 열어 상봉하는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이 설화는 내 북에 산다계 설화의 초혼형으로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전승되는 광포설화이다.<sup>14)</sup> 중국에서는 조왕신의 내력담으로 전승되고, 일본에서는 炭燒長者譚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설화는 제주도의 전상신과 중국의 조왕신이 한 집안의 운명을 관장하거나 그 집안 개개인의 운명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공통한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운명이 가난한 숫장이나 마통이와 결혼하여 살게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어떠한 운명 관장신에 의해 한 집안의 북이 좌우된다는 관념이 동아시아에서 공통한다는 것은 신앙의 다원발생보다는 전파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그럴 경우 고대 문화교류, 민족 이동, 언어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북방 문화가 민족의 이동과 더불어 남하하면서 전승된다.

이러한 북방문화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아래자 설화를 들 수 있다.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김통정 설화에 따르면<sup>15)</sup> 과부의 침실에 밤마다 어떤 남자가 찾아

12)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13) 허남춘, 「삼성신화 일고찰」,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14) 현승환, 「내 북에 산다계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3.

15)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7, pp.107-114.

와 자고 간다. 이 아래자의 허리에 몰래 실을 묶어 그 자취를 찾으니 지렁이의 허리에 실이 묶여져 있었다. 그 후로 과부는 옥동자를 낳았는데 아이는 온몸에 비늘이 돋아 있었고, 겨드랑이에는 자그마한 날개가 돋아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지렁이와 정을 통하여 낳았다 하여 「지렁이 진」자 성을 붙이고 진통정이라 불렀다. 김통정은 고려시대 사람으로 삼별초를 이끌고 몽고에 항전했던 장군이다. 이러한 사람이 아래자 설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영웅을 기구했던 전승자들의 뜻과 어울어진 결과이다. 김화경은 아래자 설화 속의 화소의 대비와 아래자의 혼인 방법을 들어 북방계 설화라고 추론하였다. 그는 <딸이 아버지에게 “매양 자주색 옷을 입은 남자가 저의 침실에 와서 관계를 하곤 합니다”라고 하였다>라는 데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一時的 妻處婚制 형태임을 들고 이러한 婚俗으로 三國志 魏志 東夷傳에 나타나는 婿屋制의 기록을 들고 있다.<sup>16)</sup>

그 풍속에 혼인을 할 때에는 말로 미리 정한 다음에, 여자의 집 큰 건물 뒤에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데, 그것을 사위의 집(婿屋)이라고 하였다. 사위가 저녁 무렵에 여자의 집 대문 밖에 이르러 이름을 부르고 무릎을 꿇어 절을 하면서 여자와 같이 잘 것을 청하였다. 이렇게 두세 번을 거듭하면, 여자의 부모는 비로소 들고 조그마한 건물에서 같이 자게끔 하였다. (그런데) 옆에는 鏡帟을 놓아 두었다. 아이를 낳아 장성해지면, 부인은 시가로 돌아갔다.<sup>17)</sup>

이러한 혼인 풍습은 제주도에서도 행해진 것과 유사하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혼인 후 신부는 시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이 끝난 후 첫날밤을 지낸 다음날부터 친정에 가서 지낸다. 시집에는 제사, 명절 때이거나 농사로 특히 바쁠 때에 신부는 와서 시집의 일을 거들어 주고 그 나머지는 친정에 가서 지낸다. 신랑은 친정과 시집을 오가며 지낸다. 아이는 친정에서 낳고 백일이 지나면 혼인식 때 신부의 얼굴에 연지끈지를 찍듯이 아이의 얼굴에 솜검정을 바르고 시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제야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어 새 살림을 차린다. 이것은 서옥제에서 <아이를 낳아 장성해지면, 부인은 시가로 돌아갔다.> 라는

16) 김화경, 「한국설화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7, p.155.

17) 「其俗作婚姻 言語已定 女家作小屋於大屋後 名婿屋 婿暮至女家戶外 自名跪拜 乞得就女宿 如是者再三 女父母乃聽使就小屋中宿 傍頓鏡帟 至生子已長大 乃將婦歸家」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5사초(상)」, 서울, 단국대출판부, 1977.



사실과 유사하여 제주의 혼인 풍습이 고구려 서옥제의 잔영인 듯하다. 이런 점에서 설화 연구는 고대 민속 연구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또한 설화는 우리의 독창적 문학작품이면서 주변의 요소를 받아들여 전승시키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주변의 요소들은 고대 한국 문학 작품으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있다. 향가의 最古型이랄 수 있는 서동요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서동요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 근원설화의 바른 해석이 요청된다. 池龍의 아들인 서동이 아이들에게 서동요를 부르게 함으로써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혼인과정을 화소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진평왕은 서동이 퍼뜨린 소문을 듣고 선화공주를 쫓아낸다. <축출>
2. 선화공주는 기다리고 있던 서동을 만나 부부가 된다. <결혼>
3. 부부는 금을 발견하고 서동은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오른다. <금발견 · 왕등극>

이 화소는 삼공본풀이의 화소와 공통한다.

1. 누구의 덕에 사느냐고 묻는 아버지의 말에 제 복으로 먹고 산다고 대답한 셋째 딸이 쫓겨난다. <축출>
2. 산중의 오막살이에서 마통이를 만나 부부가 된다. <결혼>
3. 부부는 마구덩이에서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다. <금발견 · 부자>

이러한 공통 설화를 배경으로 하나는 신화로, 하나는 향가의 배경설화로 남아있다는 것은 제주도와 한국본토에서 다원발생했다고는 보기가 어렵다. 또한 삼공국사의 서동요 기록이 전국에 퍼짐으로써 오늘날의 민간설화와 삼공본풀이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이야기가 중국과 일본에서도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8)</sup> 즉 설화로 전승되던 것을 백제의 무왕과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를 등장시킴으로써 시가문학을 향유한 셈이 된다. 판소리계 소설이 설화를 근원으로 하여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화는 고대 한국 문학 이해의 기초 자료가 됨을 알 수 있다.

---

18) 현승환, 앞의 논문 참조

#### 4. 맺 음 말

제주도 설화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오랜 동안 변화의 속도가 늦어졌다. 근래에 들어 교통 통신의 발달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설화는 사람이 만들고 향유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변하면 자연히 설화도 변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람이 사라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전승하는 설화를 채록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으로써 책 입자 의무이다.

설화 조사는 설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설화를 탄생시키는 환경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의 주변 환경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설화를 기록할 때는 방언과 표준어를 병기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 설화를 요약하여 기술함으로써 연구자의 편의를 돕는 것도 제주 설화를 알리는 한 방편이 된다.

민속연구가들에 의해 많은 설화 자료집이 출간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옥이라도 다듬어야 빛을 발한다.

제주도는 신화의 보고이다. 설화 수용자들이 향유하는 설화 속에는 신들의 이야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나타나므로 제주 설화를 주변국 설화와의 대비를 통해 특수성을 찾고, 주변 과학의 힘을 빌어 한국 문학에 끼친 설화문학의 영향을 살펴야 할 것이다. 많은 고전문학의 근원설화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설화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다.